



전주교대 신입교수 4인, 대학발전기금 기부

전주교육대학교 손태권(수학교육과)·신현정(과학교육과)·권문호(과학교육과)·임현택(음악교육과) 신입교수가 도서관 개축을 위한 시설확충 모금 캠페인에 동참, 각각 1백만원씩 총 4백만원의 대학발전기금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대학발전기금 기탁식은 8일 총장실에서 열렸다. 신입교수 4인은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보탬이 되고 싶었다”며 “개축 도서관이 대학만의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 교육의 중심축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박병춘 총장은 “임용 초기부터 대학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준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다”며 “이번 기탁이 단순한 재정적 지원이 아닌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구로구,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

남원시는 지난 5일부터 2일간 자매도시인 구로구청이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에 초청, 남원지역 초등학생과 인솔자 2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구로구의 남원시 방문에 이어 마련됐으며, 청소년들은 양 도시를 방문하여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며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남원시 청소년들은 △서울퓨처랩 △G밸리 산업 박물관 △네트마블 게임박물관 △롯데월드 관광 등 1박 2일간의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며 문화교류를 통해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도동동, 취약계층 가구에 기저귀 지원

남원시 도동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일 '1일 1가구 소통행진'을 통해 발 굴한 취약계층 가정에 기저귀를 지원한 바 있다. 대상 가구는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가 배변 문제로 인해 기저귀 사용량이 많아 비용 부담이 매우 큰 상황으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건강상 이유로 근무가 어려워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도동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후 대상 가구에 50만원 상당의 기저귀를 지원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해 주었으며, 대상자는 “매일 많은 양의 기저귀를 사용해야 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동사무소 덕분에 마음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졌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죽항동, 취약가구에 새 보급자리 선물

남원시 죽항동 관계자는 춘향로타리클럽(회장 김명례)과 동 맞춤형복지팀이 협력해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가정 2가구를 대상, 도배 및 정관 교체, 싱크대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활동에는 봉사위원장(임현선)이 직접 공기청정기를 기부하고 타 회원들도 이불과 범비세탁 등을 기부해 주거환경 조성에 보탬이 되며, 지원 대상은 중장이 1일 1가구 방문하며 발굴한 주거 취약가정으로, 장기간 노후된 주택에서 생활하면서 위생과 안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가구들로, 이번 사업으로 안정적이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갖추며 건강과 위생에 대한 우려도 크게 해소되었다는 평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산 UPS로 전기안전의 새 지평 열다’

2025 전기안전대상… 김성조 국제통신공업 대표 은탑산업훈장 수상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주관한 '2025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에서 국제통신공업 김성조 대표가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며 주목을 받았다.

8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 광개토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1995년 시작돼 올해로 28회째를 맞은 전통 있는 전기안전의 축제로, 전기안전 유공자들의 헌신을 기리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권위 있는 무대다. 올해 시상식은 특히 '안전'을 넘어 '미래'를 밝히다'라는 주제로 첫선을 보인 대한민국 전기안전 컨퍼런스의 서막을 여는 자리로 마련돼, 그 의미가 한층 깊었다. 기존에 흩어져 진행되던 사고조사 세미나, 전력설비안전성 향상대회 등 6개 전문 행사가 3일간 집중적으로 진행되며, 참석자들에게 풍성한 교류의 장을 제공했다. 행사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성민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박덕열 수소경제정책관을 비롯해 전기업계 종사자, 유공자와 가족 등 400여 명의 인파가 운집, 전기안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 올해의 주인공은 단연 김성조 대표였다. 그는 무정전 전원장치(UPS)와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개발에

사용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은탑산업훈장의 영예를 안았다. 이 밖에도 산업포장은 진명전력(주) 배장수 대표와 한국전기안전공사 조성국 홍보실장이 차지했다. 배 대표는 최근 3년간 1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무재해로 완수하며 '안전 시공'의 모범을 보여주었고, 조 실장은 국민들의 전기안전 인식 제고와 검사 제도 개선에 헌신해 산업 발전의 숨은 공신으로 평가받았다. 격려사에 나선 산업부 박덕열 수소경제정책관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 예방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며, 노후 공동주택과 감전사고 취약 현장의 점검 강화, 재생에너지 전원별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약속했다. 남화영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전기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한 유공자들의 땀과 노고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컨퍼런스를 통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재난 감시부터 사고 예방 제도 수립까지 총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오상근 기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며, UPS 제조의 국산화라는 패기를 이끌어냈다. 또한 30여 건이 넘는 특허와 인증을 통해 전기



국민연금공단, 강릉에 생수 1만2000병 긴급 지원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식수난에 직면한 강릉 시민들에게 국민연금공단이 긴급한 구호의 손길을 내밀었다.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나눔재단은 지난 5일,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시에 2리터 생수 1만2,000병을 긴급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강릉시(시장 김홍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뤄졌으며, 주민들에게 신속히 전달될 예정이다. 강릉의 식수 공급을 책임지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9월 3일 기준 14.1%로, 매일 역대 최저치를 새로 쓰고 있다. 현 추세라면 불과 2주 내 완전 고갈이 예상돼 지역 주민들이 생활용수 공급 중단이라는 극심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상황을 국가적 재난 수준의 긴급 사태로 인식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 실천 차원에서 신속히 생수 지원을 결정했다. /오상근 기자



군산부설초, 2학기 학생회 리더십 캠프 성료

군산부설초등학교(교장 서신영)는 지난 5~6일 이틀간 2학기 학생회 리더십 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학생회 임원들이 학교의 중심 리더로서 필요한 자질을 배우고 협동심과 책임감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리더십 특강과 협업활동을 비롯해 학생 리더로서의 다짐을 다졌다. 학생회 임원은 “리더십 캠프를 통해 친구들과 더 가까워졌고, 자랑스런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남겼다. /장은성 기자



재경무주 설천면민회 이경도 회장, 고향사랑 기탁

이경도 재경무주군민회 설천면민회장이 지난 6일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 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이경도 회장은 “무주의 자라나고 출향인들의 공지인 반딧불축제 현장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탁하게 돼 기쁘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고향 무주발전과 군민 행복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자리가 더 많은 출향인들의 고향사랑 기부제 동참을 불러오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치매안심센터,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성료

진안군치매안심센터는 매년 9월 21일로 지정된 '치매극복의 날'을 기념해 8일 진안문화의 집 마이홀에서 지역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치매에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을 슬로건으로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 예방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에 이어 축하공연과 관역치매안심센터 한명일 센터장의 '치매 바로알기' 강연도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문민수 치매안심센터장(보건소장)은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진안군을 만들기 위해 보건소와 군민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유대만 기자

전북자치경찰위원회, 2025년 정책공모전 시상식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연주)가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전북 자치경찰 정책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도민과 경찰관이 함께 만들어낸 우수 아이디어를 시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치안 정책에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고, 현장의 경험을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월 26일부터 한 달간 도민과 경찰관으로부터 접수된 정책 제안은 모두 의견으로 고려 어르신 안전, 청소년 범죄 예방, 첨단기술 활용 등 지역 특색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도민 부문 최우수상은 설봉준 씨의 '치매 고령자 위치확인 배지 배포'가 차지했다. QR코드가 새겨진 배지를 활용해 실종 치매 노인을 빠르게 보호자와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시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협력 치안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지능형CCTV 센서로 긴급 상황을 포착하는 시스템(박세희) △청소년 온라인 도박 조기 차단 서비스

(유현명) △점등형 표지병으로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정준철) 등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경찰관 부문에서는 정명조 익산경찰서 경사

제1회 전주기전대학 총장배 파크골프대회 성료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이 주최한 '제1회 총장배 파크골프대회'가 지난 6일 원주 설화파크골프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전주기전대학과 원주군이 함께 준비한 첫 지역 연계 체육행사로, 이날 200여 명의 선수 및 관계자가 참여해 생활체육의 즐거움과 공동체의 가치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회는 지역 주민과 대학 구성원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체육 문화 확산을 목표로 기획, 이를 통해 지역친화형 캠퍼스로의 전환과 사회적 책임 실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실천하고 있다. 특히 경기 중간에는 전주기전대학 시니어스포츠와 재학생들이 선보인 시니어모델 워킹쇼가 큰 호응을 얻었다. 개회식에는 유희대 원주군수, 조희천 총장, 조덕현 부총장, 장세주 한국파크골프 회장, 이현정 다누리인재교육컨설팅 대표, 조진현 HD현대오일뱅크 남부부문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경기 결과 남자부 1위는 정준호 선수, 여자부 1위는 박일옥 선수가 각각 차지했다. 정준호 선수는 “대회를 준비한 전주기전대학에 감사하다”

며 “첫 대회에서 우승까지 하게 돼 너무 즐거운 하루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일옥 선수는 “시니어의 건강과 행복을 만들어준 전주기전대학 시니어스포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희천 총장은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동행을 기반으로 체육·문화 프로그램

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희대 원주군수는 “군민이 주체가 되는 생활체육이 더욱 공고히 자리 매김하길 기대한다”며 대회의 성공을 축하했다. 시니어스포츠와 조서연 교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생활체육의 가치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전주기전대학은 파크골프 발전과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는 전주기전대학이 주최·주관하고, (주)한국파크골프 피닉스, 다누리인재교육컨설팅, HD현대오일뱅크가 후원사로 참여했다. 피닉스는 파크골프채 및 용품을, 다누리는 기념품과 심판 및 진행요원을 지원했으며, HD현대오일뱅크는 상품권과 음료를 후원했다. /장은성 기자